

#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 386

2017. 11. 12

2017년 주님의교회 표어

다시 거룩한 교회로!  
(레 19:2, 롬 1:17)

### 오늘의 말씀

이르되 자비를 베푸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  
니라 누가복음 10:37

### 오늘의 주요기사

- 2 종교개혁 이야기, 더 바이블
- 3 선교 이야기
- 4-7 특집 / 2017 사역박람회
- 8-9 특집 / 새 담임목사에게 바란다
- 11 목회 칼럼
- 12 공동체 소식

### 교회 일정

- 11/12(주일) 정기당회  
11/16(목) 수능일, 수능기도회  
11/19(주일) 사역박람회, 결혼예비학교 개강  
11/26(주일) 사역박람회, 새가족환영회

발행인 : 김성식  
편집인 : 강진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주님의교회



지난 7일은 입동, 겨울로 들어선다는 절기이다. 늘그막에 혼자 되신 분들의 추위는 외로움 때문에 더할 것이다. 변변치 않은 죽 한 그릇에, 손잡고 드리는 낮은 기도가 이 분들에게 한 점 온기를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19일에 사역박람회가 시작된다.

## 제5대 김화수 담임목사, 12월 1일 부임

지난 9월 27일 제직회에서 제5대 담임목사로 결정된 김화수 목사가 12월 1일자로 주님의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다. 김화수 담임목사는 그동안 대구신광교회를 사임하고 주님의교회와 협약을 맺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으며, 거처도 교회 인근으로 이주했다. 부임에 앞서 11월 26일 부목사, 장로, 은퇴장로들과 상견례를 하고, 12월 3일부터 예배를 집례하게 된다. 12월 3일 오후에는 각 사역부서장과 지하식당에서 만남의 기회를 갖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함즐함울**

## 2017 사역박람회 19일 개막

올해 사역박람회가 19일과 26일 2주에 걸쳐 개최된다. 올해에는 꼭 필요한 사역팀에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 예년과 달리 신청한 팀만 박람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주님의교회의 사역자는 출석교인의 20% 미만으로, 한 사람의 사역자가 여러 사역을 맡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1인 1사역의 시대가 돌아오기를 기원한다. **함즐함울**  
> 특집기사 4~7면

| 날짜                                       | 위원회     | 부서            |
|------------------------------------------|---------|---------------|
| 3번째 주일<br>(11/29)                        | 예배 분과   | 안내1,2부        |
|                                          |         | 할렐루야 찬양대      |
|                                          | 봉사 분과   | 주방            |
|                                          |         | 주차안내          |
|                                          |         | 도서실           |
|                                          |         | 결혼예식          |
|                                          | 복지분과    | 전화상담          |
|                                          | 전문위원회   | 상례부           |
|                                          | 음악 분과   | 1부 찬양대        |
|                                          |         | 4부 찬양대        |
| 3번째 주일<br>(11/19) ~<br>4번째 주일<br>(11/26) | 음악 분과   | 미시오데이         |
|                                          | 예배 분과   | 3부 찬양대        |
|                                          | 예배 분과   | 중보기도          |
| 4번째 주일<br>(11/26)                        | 청소년 사역원 | 학원선교(기도사랑어머니) |

| 날짜                | 위원회            | 부서                                                          |
|-------------------|----------------|-------------------------------------------------------------|
| 4번째 주일<br>(11/26) | 젊은이<br>분과위원회   | 행정, 중보지원, 사역                                                |
|                   | EM<br>분과위원회    | 영어예배부, 어린이영어예배                                              |
|                   | 어린이<br>분과위원회   | 하임,하늘씨앗,썬트네, 담쟁이, 포도나무,<br>햇살뜨락, 아름드리, 아기정원, 어와나,<br>교육지원1부 |
|                   | 국내선교분과         | 군경선교                                                        |
|                   |                | 법조선교                                                        |
|                   |                | 의료선교                                                        |
|                   | 문화스포츠<br>선교 분과 | 성극                                                          |
|                   |                | 호산나무용                                                       |
|                   | 통일선교<br>분과위원회  | 통일선교지원,하나원, 북한이탈주민지원,<br>대외활동지원                             |
|                   | 해외선교<br>분과위원회  | 해외선교지원,선교기도,비전트립지원,<br>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미주,유럽,아프리카팀              |
| 4번째 주일<br>(11/26) | 섬김과나눔          | 늘푸른대학운영                                                     |

종교개혁 이야기 12

## 종교개혁의 완성자 칼뱅

우리는 칼뱅에 대해 생각할 때, 제네바의 성공적인 목회자이지만 아주 경직된 예정론을 주장했고, 『기독교 강요』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세르베투스를 화형시키고 카스텔리오를 추방한 킨 편협하고 완고한 사람을 생각한다. 하지만 스토페르(Richard Stauffer)가 지적했듯, 역사상 칼뱅만큼 오해받고 있는 인물도 없다. 칼뱅은 그의 적대자들뿐만 아니라 그의 추종자들에게도 많은 오해를 받아왔다. 칼뱅에 대한 비방은 그와 동시대인이었던 볼섹(Jerome Bolsec)에 의해 이미 시작되었다. 볼섹은 원래 로마가톨릭의 수도사였으나 개신교 진영으로 전향했다가 후에 칼뱅의 예정론에 반발하면서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가 칼뱅의 전기를 출간했는데, 그 책에서는 칼뱅



제네바의 종교개혁 기념 조형물

을 “야심이 많고, 뻔뻔하고, 거만하고, 잔인하고, 악하고, 양심을 품은 자이고, 게다가 무식하기까지한 인물”로 묘사하였다. 볼섹 이후로도 칼뱅은 가톨릭 측 저술가들뿐만 아니라 그의 추종자들에게도 무비판적인 비난을 받아왔는데,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비난이 편협한 시각에서 기인한 것이고, 그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시기적으로 보자면 칼뱅은 종교개혁의 1세대인 루터나 츠빙글리보다 한 세대 뒤에 활동한 2세대 종교개혁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칼뱅은 앞선 선배들이 드러낸 약점을 보완하고 종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칼뱅이 앞선 종교개혁자들보다 더 넓은 안목으로 프로테스탄트 신학을 종합하려고 했다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경우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첫째로, 칼뱅은 성만찬으로 심각한 갈등을 빚던 루터주의자들과 츠빙글리주의자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 ‘성만찬에 대한 이견’을 소개

하면서도 기록했지만, 칼뱅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함으로 루터의 육체적 임재설과 츠빙글리의 상징설을 통합하고자 했다.

둘째로,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프로테스탄트는 사랑의 행함이나 거룩한 삶에는 관심이 없고 믿음이 만사형통이라고 가르친다는 오해와 억측이 있다. 하지만 칼뱅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더불어 거룩한 생활을 통한 성화를 동시에 강조함으로써 프로테스탄트 신학이 결코 편향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부각시켰다.

셋째로, 루터가 개인의 구원에 관심을 둔 반면에, 칼뱅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랐다. 그리하여 종교와 사회와 정치의 유기적인 구조를 구축한 제네바 정치시스템을 창안해낸 것이다.

1909년 칼뱅 탄생 400주년을 기념하여 세워진 종교개혁 기념 조형물에는 제네바 종교개혁의 핵심인물 네 사람(왼쪽부터 파렐, 칼뱅, 베즈,



칼뱅의 무덤

녹스)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들은 모두 스위스 사람도 아니었지만 제네바를 세계 속의 종교적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특별히 칼뱅의 동상이 다른 세 동상보다 한 걸음 더 나와 있고, 조금 더 크게 만들어져 있는 것은 그가 미친 영향이 훨씬 컸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칼뱅은 그의 유언으로 그를 위해 무덤조차 만들지 말라 하였는데, 후대 사람들이 그의 무덤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상도 만들어 놔다. 그 동상은 전 세계에 딱 두 곳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제네바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장로회신학대학교이다.)

박주영 목사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한-더 바이블 (The Bible) 8

## 6. 모세오경

### 모세오경은 무엇인가?

성경의 구성과 배열에 대한 차이점과 그 의미에서 이미 언급했듯이(함울함울 378호)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말한다. 성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토라, 모세의 토라’라고 부른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에서 나오는 율법책에 대한 차용어라 할 수 있다. 오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진 책’이라는 명칭의 합성어이다.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왜 굳이 모세오경으로 한정적으로 구분했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것이다. 가령 여호수아는 모세오경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인가? 또는, 신명

기가 굳이 오경에 속해 있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주고 있다. 신명기 34장과 여호수아 1장7-8절의 말씀은 모세의 시대와 여호수아의 시대에 대한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그렇지만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신명기로 마치지 않고 율법서와 예언서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현재에 이르고 마지막 재림시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큰 문학적 구조 안에 있음을 독자는 인지해야 한다.

어쨌든 모세오명은 5권의 책을 말한다. 그리고 모세오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에 대한 원칙인 율법과 규례가 중심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경은 특별히 오경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단순한 사건의 시작과 끝으로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들이 하나의 곡선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약속과 명령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은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완전한 성취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오명은 율법과 규례가 중심적인 내용으로 등장하듯 보이지만 율법과 규례를 긴밀하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 있다면 그

것은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내러티브의 사건들이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신명기가 한 단위로서 독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오경은 한 단위의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 성경 전체66권에서 마치 글의 중요한 머리말이나 서론처럼 매우 중요한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오경을 제외하고 성경을 해석하거나 읽으며 소위 맥을 잡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은석 목사

사역소식

## 성극 <순교자 주기철 목사>



주님의교회 성극팀에서는 10월29일에 남양주에 있는 신망애 복지재단에서 장애인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면서 <순교자 주기철 목사>라는 제목으로 성극을 공연하였다.

일제는 1940년대에 황민화 정책으로 조선백성들에게 창씨개명과 함께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창씨개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사참배는 기독교의 우상숭배금지에 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의 서슬 퍼런 통치시기에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산정현교회 시무 때인 1938년 2월 이후 네 차례

투옥되면서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일제의 강요에 맞서 투쟁하였다. 성극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다섯 가지 기도(일사각오 설교)와 송곳판을 걷는 고문장면 그리고 마지막 순교하기 전 오정모 사모에게 "따뜻한 숯불 한그릇 마시고 싶소"라고 하는 장면에서 예배당을 가득 메운 장애인들과 모든 교우들이 감동을 받았다며 우리의 손을 일일이 잡아 주면서 감사함을 표시하였다. 부족한 우리가 성극을 통하여 은혜 주고받으며 선교하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다.

손경숙 권사 / 성극팀장

사역소식

## 교사 힐링데이

지난 10월 29일 주일에 청소년교육목회원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한 선생님들의 수고를 위로하고자 교사힐링데이를 가졌습니다. 풍성한 선물과 맛있는 식사, 재밌는 레크레이션과 교역자들의 감동적인 무대까지 정말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힐링이 넘치는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중·고등부 부장단, 교육지원2팀, 교역자들은 두어 달 전부터 모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표현력이 약한 아이들을 향해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은 사랑을 퍼주느라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이 선생님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중간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통해 도움

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식사를 베푸신 손, 선물을 헌납하신 손, 그리고 무거운 테이블을 옮겨야 했던 손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힐링데이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삶의 경계에 위태롭게 서있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해서든 사랑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힐링데이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선생님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상현 전도사

선교이야기 10

## 전문인 선교의 실례

‘전문인 선교사’라는 용어는 사도행전 18:3에 사도 바울이 천막을 지으며 사역을 하였기에 여기에서 사용된 ‘tentmaker’라는 단어를 전문인 선교사로 번역한 것에서 유래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사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자와 일정한 재정이 필수적인데 목회자나 선교사 신분의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는 지역에서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직업을 가져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바울도 천막을 짓는 직업을 자신의 사역에 이용했습니다.

전문인 선교라는 이름이 사용되기 오래 전부터 사역지에서는 전문인 선교가 이미 이루어져 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 및 의료선교 분야일 것입니다. 치과 의료선교를 통한 전문인 선교의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991년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의 독립과 더불어 그 중심에 있는 한 나라에 치과 의사 선교사가 처음 파송되어 들어간 이래로 여러 분

의 치과 의사들이 순차적으로 이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 분들이 처음 몇 년이 지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지자 버스에 진료 장비를 셋팅시켜서 조직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러 변방 지역을 다니며 무료로 이동진료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 수년 후에 정식으로 치과 무료 병원을 수도에 개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개원하게 되자 환자를 진료하면서 치과 의사들의 가장 큰 단체인 치과 의사협회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치과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들에게 학술대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보건복지 관련 공무원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고 국립치과대학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강의를 해주었을 뿐 아니라 젊은 치과 의사들을 수련의로 선발해 임상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 치과 의료의 불모지였던

이 나라 치과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고 치과 의료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치과 의료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치과 의료인은 물론 치과와 전혀 관계없는 분까지 수 많은 사역자들이 이 십여년에 걸쳐 이 사역에 헌신한 결과였습니다.

1884년 우리나라 최초로 이 땅을 밟았던 선교사 알렌은 의사로서 그리고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습니다. 그가 정부의 고관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왕성한 의료 봉사를 했기에 1885년에 들어왔던 언더우드, 아펜셀러 등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쉽게 정착을 할 수 있었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열악한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있는 경우가

흔하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 선교는 이루어져야만 하고 이로 인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돌파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법조인 선교, 실업인 선교, 농업 선교, IT 선교, 태권도 등과 같은 스포츠 선교 등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문인 선교는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높은 차원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한 분야에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한 분야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전문인 선교의 한 팀원으로 supporting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팀에는 다양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하고자 해외선교분과의 제공으로 12회에 걸쳐 선교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특집 / 2017 사역박람회

## 2017년 사역박람회 이렇게 진행된다

2017년 사역박람회가 11월 19일과 26일 펼쳐진다.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팀원의 충원이 필요한 사역팀만 박람회에 참여하여 집중도를 높이기로 했기 때문에, 신청한 30팀만 사역박람회에 참여한다. 사역박람회는 매년 이맘때 연례행사로 진행되어 왔다. 이 참에 2017년 사역박람회는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더 나아가 교회에서 사역이란 무엇인지, 왜 사역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11월 5일 오후 2시 함즐함울실에서 은사사역팀과 좌담회를 가졌다.

**함즐함울(이하 '함') :** 참석해 주신 은사 사역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사역박람회 준비를 위한 담당자 모임'을 마치고 오셨지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겠습니다. 우선 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전숙정 권사(이하 '전') : 은사사역팀은 2011년도에 은사개발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어떤 달란트가 주어졌는지를 과학적으로 파악하여 사역팀과 연결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지요. 당시 합리적인 사역 시스템에 관심을 가졌던 몇몇 부부가 주축이 되어 초창기 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말하자면 창립 멤버였습니다(웃음). 독일에서 개발된 은사진단 시스템을 도입,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해서 교인 한 명마다 명시적 은사와 잠재적 은사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명시적 은사는 바로 사역팀으로 연결하고, 잠재적 은사는 좀 더 개발해서 다음 사역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었지요..

**함 :** 처음부터 사역박람회를 주관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인가요?

정상철 안수집사(이하 '정') : 그전에도 사역박람회가 매년 진행되었지만, 교회 차원에서 박람회를 전담하는 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은사개발팀도 첫해에는 박람회를 맡지 않았다가 아마 2012년쯤부터 주관하게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함 :** 신미향 집사님과 송숙희 집사님은 언제부터 은사사역팀에서 봉사하셨어요?

신미향 집사(이하 '신') : 2013년부터입니다. 그해 사역박람회를 둘러보다가 '은사개발팀'이라는 이름에 속았습니다(웃음). 저 개인의 은사를 개발해주는 것이라고 알았거든요. 은사개발팀을 하면서 여러 사역을 많이 접하고, 교회의 구석구석을 알게 되면서 애착이 생겼습니다.

송숙희 집사(이하 '송') : 저는 다른

교회에서 2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2015년에 주님의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이듬해 중등부 교사를 했는데, 같이 교사를 하는 신집사님이 권유해서 은사사역팀에서도 봉사하게 되었지요.



전숙정 권사 / 은사사역팀 팀장

“

2017 사역박람회에는 팀원이 필요한 사역팀만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 판넬 등 홍보 자료의 제작을 은사사역팀에서 돕기로 했습니다.

”

**함 :** 은사사역팀 하시는 일에 모두들 애정이 많으신 듯합니다. 주님의교회의 사역자 현황은 어떤가요?

정 : 믿음 생활은 구원과 선교, 구제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와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현대 교회가 축복만 강조하다 보니 사역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의교회에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교회 차원에서야 재정의 50%를 대외 구제에 사용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막상 일반 교인들은 사역을 많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

면 약 1,400명만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데, 출석 교인 대비 20%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주님의교회라는 이름에 비하면 좀 부끄러운 일이지요.

전 : 우리 교회의 특성상,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다가 여러 이유로 갈등을 겪고 옮겨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좀 쉬고 싶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역을 쉬다보면 저절로 교회에 대한 애정도 식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을 깨워야 됩니다.

신 :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도록 홍보를 해야 합니다.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하죠. 우리 교회는 교인이 많다 보니 사실 새로 오신 분들을 일일이 챙겨 드리지 못하는 편이거든요.

송 : 저도 전에 다니던 교회에선 사역에 열심이었고, 권사도 했었습니다. 물론 직분에 미련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집사라고 불려도 전혀 개의하지 않습니다만(웃음). 사람은 대개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미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많은 주님의교회 새신자의 특성상, 새신자 교육에서 아예 은사사역에 대한 진단과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새신자 교육 기간 후에는 교회에서 아무도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거든요.

**함 :**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주님의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누가 붙잡고 아는 척하지 않아서 좋다고(일동 웃음). 어떻게 보면 자유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서운했다는 느낌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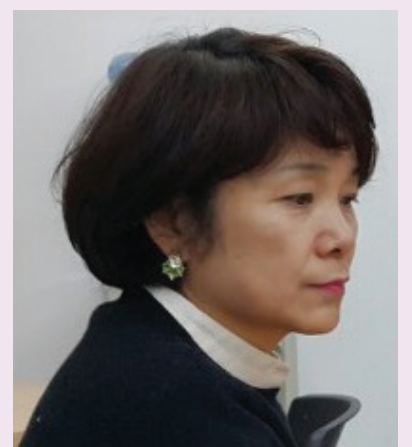
전 : 전반적으로 사역박람회 자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낮은 편입니다. 2012년부터 사역박람회를 주관하면서 느낀 건데, 사역박람회에 대한

교인들의 호응도 많지 않았지만, 교회에서도 그냥 연중행사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간주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역을 특별하게 강조하지도 않는 분위기였고요. 사역신청서 받는 함을 만들어 안내 데스크에 놓았지만 역시 성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함 :** 통렬한 지적이십니다. 원인이 뭘까요?

송 : 저야 이 교회에 오래 다니지 않아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데,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새신자의 은사개발을 구역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신자가 등록을 하면 바로 구역 모임에 편입하고, 구역장이 사역팀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었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그런 제도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 : 주님의교회의 기본 창립 정신, 즉 재정의 절반을 대외 구제에 쓰고,



송숙희 집사

“

이미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많은 주님의교회 새신자의 특성상, 새신자반 교육에서 아예 은사사역에 대한 진단과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

“ 재정의 절반을 대외 구제에 쓰고, 교회 건물을 갖지 않고, 무기명으로 헌금하고, 목회자와 향  
존직의 임기제를 두는 것의 핵심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네 가지 원칙에는 교인들의 실천을 강요하는 부분이 없어요.

”

교회 건물을 갖지 않고, 무기명으로 헌금하고, 목회자와 향존직의 임기제를 두는 것의 핵심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네 가지 원칙에는 교인들의 실천을 강요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좋은 교회이지만, 막상 교인들은 헌신에서 멀어지기 좋은 구조가 되는 것이지요.  
전 : 사역 자체에 대해 교회 전체의 관심도 낮고, 개별 사역에 대한 전문성도 높지 않은 듯해요.



신미향 집사

함 : 사역에 대한 전문팀이신데, 해결책이나 사역 참여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오셨을 것 같습니다.

신 : 목회 방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과 신앙의 원리와 본질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해야 하는지도 설교 중에 강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 : 교적부 관리, 새신자반과 구역 관리 등 교회 내 관련 조직이 은사사역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역 상담 센터 등도 만들어보려 노력하는데, 이 사안 자체에 대한 이해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 : 부산수영로교회나 거룩한빛광성교회 등에서는 사역을 교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지요.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는 담임목사가 그날 등록한 새신자를 일일이 면담하면서 달란트에 맞는 사역팀으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함 : 2017년 올해 사역박람회는 다른 해와 좀 다르게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전 : 그동안에는 모든 사역팀을 일괄적으로 박람회에 참여하게 했었지요. 106개에 이르는 팀이 한 번에 박람회를 하다 보니, 장소도 협소하고 홍보도 부족해서 실질적인 참여도는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팀원이 필요한 사역팀만 참여하

“

하나님 자녀로서 사랑을 많이 받으신 만큼 그 열매들을 사역을 통해서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도록 했습니다. 그 대신 판넬 등 홍보 자료의 제작을 은사사역팀에서 돕기로 했습니다.

정 : 은사사역팀에서는 사역박람회 기간 동안 운영본부를 설치해서 사역팀의 홍보를 지원할 겁니다. 오늘까지 총 30팀이 신청하셨는데, 이번엔 따로 브로셔도 발행할 예정입니다.

함 : 그래도 보람이 전혀 없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전 : 사역팀을 소개해 드렸는데, 즐거워하시면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사역팀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배움이요 즐거움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럴 때마다 저도 참 기쁘고, 은사사역팀의 역할에 애착이 생깁니다.

정 : 전에는 피택자 수련회 때에도 은사분석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 때

자신이 미처 확실히 알지 못하던 달란트를 발견하고 확신을 가진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신 : 교회를 옮기면서 좀 지쳤었기 때문에 처음 삼년은 좀 쉬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고 난 후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만두어 소속감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중등부 교사도 하게 되었고, 사역박람회를 통해서 은사사역팀도 하게 되었죠. 송 집사님을 은사사역팀으로 모셨듯, 제가 새신자분들이 봉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참 보람스럽습니다.

함 :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요?

신 : 은사사역팀 일 중에 컴퓨터를 좀 더 전문적으로 다룰 줄 알면 좋을 텐데 제가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 좀 약해서 힘들었습니다.

정 : 좋은 은사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유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함 :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정 :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좋은 신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 생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해주셨으며 또한 사명을 주셨다는 점도 성찰해 보셨으면 합니다.

전 :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사역을 위해 일상에서의 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신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씬과 사역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 : 하나님 자녀로서 사랑을 많이 받으신 만큼 그 열매들을 사역을 통해서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송 : 1인 1사역! (웃음)

함 :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김화수 목사님이 12월부터 부임하신다고 합니다. 새로 모시는 담임목사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덧붙여 주시지요.

정 : 진정한 목양을 위한 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전 : 양을 잘 돌보시는 분이시기를, 또 말씀만이 아닌 행함으로 보여주시는 목자이시기를 기원합니다.

신 : 주님의교회를 개척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여했던 뜻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상철 안수집사

“

믿음 생활은 구원과 선교, 구제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가 축복만 강조하다 보니 사역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송 : 우리의 미래는 학생과 청소년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서에 많은 관심을 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 : 벌써 세 시간이 지났네요. 오랜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모두 아쉬워하면서 박수)

특집 / 2017 사역박람회

## 지상에서 만나는 사역박람회

2017년 11월 19일, 26일 이틀 동안 교회 로비에서 2017 사역박람회가 펼쳐진다. 올해에는 모든 사역팀이 아니라 팀원이 필요한 부서만 참여하게 된다. 그중 원고를 보내주신 몇 팀을 지상에서 만나본다. (원고 도착순)

### 주방부

주방부는 매주 주님의교회의 전통인 국수를 삶고, 국물을 내어 교인들에게 제 공하는 일을 합니다. 한겨울에도 땀이 나는 힘든 일이지만 모두 교인을 섬기는 기쁨에 기꺼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역내용** : 매주일 오전 8:30 부터 오후 3시(기간중 2시간정도)

**사역자요건** : 신체 건강한 남녀성도 누구나

**연락처** : 강대수 안수집사(010 - 9612 - 7980)

### 포도나무(유년1부)

포도나무는 초등 1, 2학년의 신앙교육과 예배를 담당하는 교육부서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분들을 모십니다.



**포도나무(유년1부)** : 예배시간 주일 오전 9:30 - 10:40

**사역내용** : 초등 1, 2 학년의 신앙교육과 예배

**사역자요건** : 아이들을 사랑하고 신앙교육에 관심있는 대학생, 일반인 교사와 Staff 구합니다.

**연락처** : 황원석 전도사(010 - 6417 - 3508), 정성권 집사(010 - 9209 - 9139)

### 어린이분과

유아숲 \_ 아기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아기정원

아동숲 \_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어와나, 어린이예친사

**사역내용 및 요건** : 어린이분과에는 아기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연령대별 주일 어린이예배가 있고 아기정원, 어와나, 어린이예친사 등 주중스쿨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어린이들은 늘 풍성하게 많지만, 교사가 늘 부족합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반을 맡아 공과시간을 통해 어린이들과 말씀과 삶을 나누는 교사, 찬양과 율동, 반주와 지휘로 예배를 돕는 교사, 컴퓨터와 영상, 음향, 사진, 행정 등을 담당할 교사, 보조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사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 오히려 교사들의 믿음과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처** : 전보영 목사(010 - 8588 - 7309)



## 호산나 선교 무용팀

호산나 선교무용팀은 한국무용을 접목한 선교무용과 우리 민족 고유의 춤사위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006년 태동되어 무지개잔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12단계 종강 늘푸른대 개강 부활절 예배드라마 참여등 예배협찬 공연을 해오던중 요즘은 각 부서의 활동을 도와 문화소외지역인 경로당과 지역 어르신 초청 잔치, 호스피스봉사자 격려 협찬, 신우회 협찬, 농어촌 미자립교회 활성화 협찬, 하나원, 형제교회와의 재능 나눔등 몸으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사역에 뜻을 같이 하실분은 모두모두 환영합니다.

**연락처** :이혜숙 권사 (010-9021-7047)



## 살롬찬양대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살롬찬양대는 주님의교회 유일한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3부찬양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기쁨과 평안을 전하는 찬양대입니다.

찬양대사역으로는, 주일3부 예배찬양, 부활절, 창립기념일, 성탄절 칸타타 등 찬양예배, 주님의교회를 대표하는 외부찬양, 송구영신예배, 새벽기도회 찬양, 여러 가지 친교를 통한 대원들의 교제가 있습니다. 찬양을 사모하는 주님의교회 등록교인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찬양대입니다.

**연락처** : 장관수 안수집사(010-4816-3140)



## 늘푸른대학

2009년에 설립한 늘푸른대학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에 예배와 특강, 중식, 그리고 13개 특별활동반에서 취미활동을 1년에 30회(1학기 : 17회), 2학기 : 13회) 진행합니다. 사역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학생 관리, 특강 선정(강사 섭외), 영화 선정, 나들이 기획, 각종 교육 준비물 설치 및 정리, 주방 사역, 싱얼롱 등으로 활동 합니다. 사역시간은 매주 화요일 9:00~14:00 이며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분을 모십니다.

**연락처** : 권성호 안수집사 (010-3726-1444)



## 통일선교분과

한반도 통일 시대를 앞두고 주님의교회 성도들에게 통일의를 고취하고, 탈북 주민들을 복음으로 섬기며 통일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입니다. 하나원부, 북한이탈주민지원부, 대외활동지원부, 통일선교지원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원을 방문하고 탈북민교회와 대안학교를 지원합니다.

**연락처** : 김경희 집사(010-6316-1945)



## 젊은이분과

젊은이분과위원회는 교회의 허리요 미래인 2030 젊은 부부들의 가정을 중심으로 모여 친교와 교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멘토 리더와 중보기도, 자녀돌보미 등으로 섬기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 임익수 안수집사 (010-3758-6162)



특집 / 새 담임목사에게 바란다

## 함께 그리는 주님의교회의 미래

지난 6월 제4대 박원호 목사가 10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후, 소정의 청빙 과정을 거쳐 김화수 목사가 제5대 담임목사로 청빙되었습니다. 청빙은 하나님의 부르심(calling)을 교회가 대행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회사나 직장의 경영자가 아니며, 교인들에 의하여 고용된 일꾼도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인간들이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지혜를 모아 담임목사를 결정합니다.

### 많은 구성원들이 헬퍼로 일할 수 있게 돕는 리더

일반적으로 공동체에는 소수의 리더와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리더에게는 공동체를 이끌어 갈 목표와 비전이 요구되며, 다수의 구성원은 이를 따를 의무가 부여된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많은 팔로워

나 팬을 보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구성원들이 헬퍼로 일할 수 있게 돕는 존재라 생각된다. 특히, 교회는 최고의 리더십이 머리 되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들에게는 로드쉽(Lordship: 예수님을 경

외하며 순종하는)이 요구되고, 성도들은 리더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팔로워가 아닌 리더를 돕는 헬퍼쉽(helpership)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새로 오시는 교회의 리더는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을 깨워 그리스

도의 몸을 세우게 하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구비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이현식 안수집사 /청년부

###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실천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무엇보다 김화수 목사님을 주님의교회 5대 담임목사님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미 주님의교회에서 시무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목사님으로서 교회와 성도를 너무 잘 아시기에 저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10년간 박원호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알곡 공동체”라는 목회의 비전을 세우시고, 그리스도 왕국에 갇혀 있었던 좁은 믿음의 범위를 넓혀주셨습니다. 구원을 교회 안에 국한시키지 않고 세상 전체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박원호 목사님의 노력에 힘

입어 이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게는 되었지만, 아직 선교, 구제, 양육, 교육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새가족 양육리더로서 주님의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께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

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각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실천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몸으로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개 안수집사 / 남, 50대

### 대형 교회가 되어 눈에 뜨이는 몇 가지 문제점들

먼저 김화수 목사님을 주님의교회 5대 담임목사님으로 청빙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10년간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하시며 교우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길 믿으며 성도 입장에서 목사님께 바라는 몇 가지를 적어 봅니다.

주님의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몇가지 창립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50:50, 교역자의 임기제, 무기명 헌금, 정신학원을 통한 학원선교, 송파구청과의 협력등등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실 주님의 교회로 30여

년간 4분의 담임목사님과 부목사님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이를 지켜 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의 구원, 축복이나 위로 보다는 우리 주변 이웃과 사회의 복음화, 이 땅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 정신학원을 통한 학원선교 등을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데 초점을 맞춰 오며 교회가 성장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 교회로 성장해오면서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 겨자씨 모임의 활성화 (성도들간

의 교제)가 역행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님의 성도 심방 등 대안이 있을까요?(가끔 위로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2. 원칙을 너무 지키려다 보니 한편으로는 이런 원칙이 율법이 되어 원칙 안에 갇혀 더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나 봅니다. 몇 가지 틀을 깨실 수 있을런지요?

3. 교회(교인)의 노령화가 심각합니다. 역으로 젊은이 사역에서 문제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장년층과 청년층의 교류가 거의 없는 것도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서도 목사님의 관심이 시급합니다. 4. 공예배 참석이 저조합니다. 향존직 직분자들의 공예배 참석을 통해 일반 성도들의 공예배 참석을 증진시키는 것 등, 예배 참석율을 높이는 일도 중요해 보입니다.

두서없이 몇 가지 적어 봤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의 입맛에 맞는 사역이 아닌 주님의 교회 이름에 맞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목사님께서 예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개 서리집사 / 남, 40대

하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16:9)와 같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섭리하십니다. 목회자로 청빙된 담임목회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도들을 양육하며 돌보고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12월에 부임, 제5대 담임목사로 주님의교회를 이끌 김화수 목사에게 드리는 교인들의 제언을 모았습니다.(원고 도착순)

##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

6살 4살 두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아빠의 모습이 있습니다. 책 읽는 모습, 땀 흘리며 운동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지만 가장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예배의 자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광성목요찬양부터 예수전도단을 거쳐 마커스예배까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청년부 찬양팀과 4부예배 찬양팀에서 찬양으로 예배를 섬겼던 그 열정과 마음을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습니다.

한 달에 한번, 아니 분기에 한번이라도 4부 예배를 아이들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사랑스런 눈으로 바라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만들어주신다면 아이 낳고 4~5년 동

안 화면으로만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하는 많은 젊은 엄마 아빠들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교육이 되리라 믿습니다.

**어진원** 집사 / 10교구 겨자씨리더, 어와나교사

## 새 담임목사님께 바라는 일곱 가지 소망

1. 가정 안에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살면서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신앙으로 포장한 세상적 욕심을 어떻게 분별하고 가려내는데 대한 신앙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

다.  
3. 고아와 과부, 약자를 위해 보호하고 베풀라는 말씀을 앞장서서 행동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교육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4. 어린이들의 어와나를 통해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있는데, 몇 년 전

중단된 트랙(중고등부)이 다시 시작되어 청소년기까지 말씀으로 잘 훈련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봉사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원 등)  
6. 3층 소년부실 앞의 탁구대를 활용

하여 탁구교실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젊은 남성(남편)들을 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7. 분기별로 하는 평일 교육을 직장인들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개** 집사 / 여, 40대

## 초심을 회복하여 한국 교회의 변화에 앞장서기를

주님의교회가 내년이면 30주년을 맞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한 세대가 지나간 셈입니다. 주님의교회 창립정신은 당시 규모의 성장을 교회의 성장이라고 보던 대형화 추세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의 절반을 외부 구제에 사용하겠다는 서약이나 목회자의 임기제, 무기명 헌금과 같은 독특한 제도 역

시 이런 반성에서 출발해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데에 의미를 둔 것이겠지요. 주님의교회에서 보여준 이 낮은 제도들은 한국의 다른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도는 화석이 되어 버리고 교인들은 그저 흔한 강남의 대형교회에 다니는 안락함에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도 널찍하고 교회 건물

도 큼직하니 큰 불편함이 없는 것이지요. 삼십년 전의 초심이 당시 교회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듯이, 삼십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에 맞춘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나서서 변화를 주도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신학적 지식도 부족하고 역량의 결집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새로 담임을 맡으신 목사님께서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셔서, 안으로는 교인들의 변화를 인도하시고 밖으로는 한국 교회에 선한 변화를 일으키는 주님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개** 안수집사 / 남, 60대

## 다음 세대인 젊은이에게도 관심을

먼저 제5대 담임목사님으로 오실 김화수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교회의 많은 시간을 청년부에서 보내

므로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새 담임목사님이 오시니 무엇인가 설레임

이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게 될 텐데 감히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청년부

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저희도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무개** 청년 / 여, 20대

사역소식

## 죽 배달팀, 따스한 겨울 선물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사)섬김과나눔 죽배달팀에서는 10월 30일(월)에 거여, 마천동 독거노인들에게 영양죽과 겨울 잠옷과 양말과 속옷을 나누어 드렸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30여분의 독거노인들에게 영양죽을 나누어 드리며 매달 마지막 주에는 50여 독거노인들에게 생필품을

나누어 드린다.

10월 30일 마지막 월요일에는 심홍섭목사가 함께 동행하여 병상에서 누워있는 독거노인들에게 간절한 기도를 해드리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독거노인 돌봄팀에서는 거여동과 마천 1,2동 세 팀으로 나누어 봉사를 하고 있다.

**함글함글**

## 예제교회와 협력 선교



2017년 10월 21일(토)에 예제교회(우동윤 목사 시무)에서는 웨미리아파트 상가주최로 아파트와 지역주민들을 위한 바자회를 진행했다. 주님의교회 국내선교팀에서는 예제교회의 협력요청으로 약간의 기증 물품과 사진배경 제작과 풍선아트와 솜사탕 봉사 등으로 참여하여 협력선

교를 하였다.

예제교회는 주님의교회 교역자로 시무를 마친 우동윤목사가 담임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다. 예제교회와는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협력선교를 해나갈 예정이다.

**함글함글**

## 학원선교부 야외세미나



지난 10월 19일 학원선교부 (청소년 사역원)에서는 과천로고스 센터로 야외세미나를 다녀왔다. 학원선교부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사랑과 뜨거운 기도로 정신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신앙을 전해주는 사랑 어머니와 기도 어머니들로 이루어져 있다. 사랑 어머니들은 정신여중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앙과 인성 교육, 복음 제시 등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또한 기도 어머니들은 정신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수업 시간을 통해 그룹별로 자연스럽게 신앙과 삶을 나누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야외세미나는 더할 나위 없이 청명한 가

을 날씨 속에서 열렸으며, 청소년들을 향한 타오르는 열정을 쏟아내시는 강사 강윤호 목사님(반포교회 담임)의 말씀 속에서 모든 사랑 어머니, 기도 어머니들은 큰 은혜를 받았노라고 고백했다. 맛있는 점심 식사 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정신학교 아이들을 신앙으로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누는 조별 모임의 시간을 가졌다. 야외 세미나를 통해서 부어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열정이 정신학교 학생들과의 만남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꽃을 피우며 열매 맺어 가기를 기대해 본다.

**문은영 목사**

## 중보기도팀 월례회



중보기도팀 11월 월례회는 11월 2일(목)에 가을 야외 월례회로 열렸다. 가평 오륜비전빌리지에서 135분의 기도의 용사들이 참석을 하여 예수전도단 크리스티 김 선교사가 “두려움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었다. 우리의 신앙, 기도생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의 모든 선한 것을 제한하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을 수 있으며 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은

기도 중 잠잠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은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며 자신이 서있는 자리에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해야한다는 말씀을 듣고 참석한 중보기도자들은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며 일반적인 틀속에서 나와서 다른 세계를 바라보기를 간구하였다. 참가자들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로운 기도 공동체 속에 내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 마음이 뿌듯하다고 하며 함께 기도하는 은혜로운 중보기도자로 믿음생활을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다고들 했다.

**함글함글**

목회칼럼

## 주님의교회 6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출발점에서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시간의 흐름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난 6년이란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의교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아보면, 왜 좀 더 기도해 드리지 못했을까, 왜 좀 더 섬기고 사랑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도 있지만 감사한 것들이 훨씬 많음에 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제가 베풀거나 섬겼던 것 보다 훨씬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았다고 생각하기에 성도들에겐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교차함을 느낍니다.

저는 지난 6년간 주님의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목회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구사역을 통해서 목회자로서 목양을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배웠고, 중보기도사역을 통

해서 교회 내 기도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배웠으며, 통일선교와 해외선교를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찬양인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와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전문인들을 통해,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교회는 제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음을 전합니다.

이제 저는 이곳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점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셔서 어떠한 목회를 하게 하실지 모르지만 걱정과 두려움보다는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더 큼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보다는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식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되면서 마음 한편이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일에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끝까지 종으로서의 부름을 기억하며,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 성도와 교회, 세상을 섬기는 목회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창진 목사**

“

**주님의교회는 제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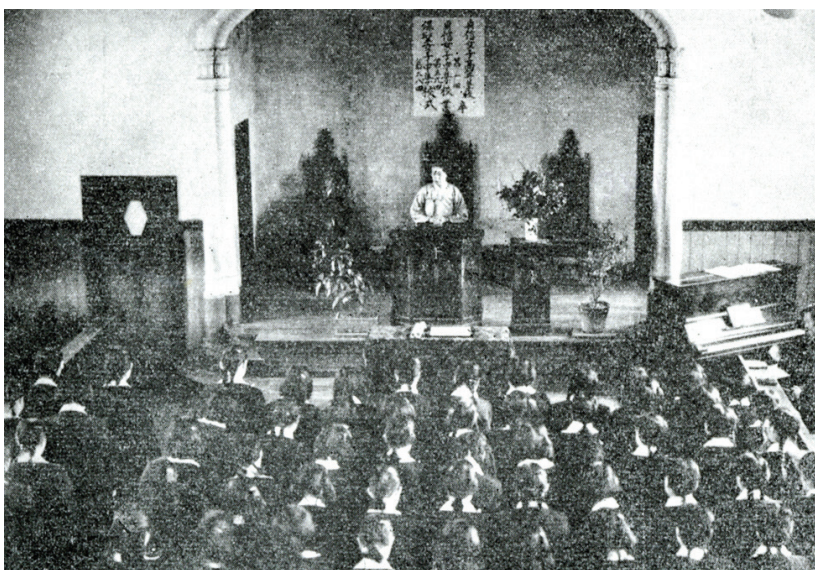
”

전합니다.

혹시 저와 사역하면서 저의 미성숙함때문에 아픈 기억들이 있으시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지면을 통해 사과의 마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 기독교의 역사48

## 졸업회수



1952년 3월25일 해방후 제1회 졸업식(부산 용두산 관북교회)

1887년 개교 당시에는 정부의 학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1907년 비로소 정부의 학제 시행에 4년의 중학본과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했다.

1907년부터 2017년까지 햇수가 111년이어서 2017년인 올해가 111회 졸업이 되어야 하는데 104회이다. 7회의 횃수가 빠져있다.

먼저 1912년, 1913년의 2년이다. 1912년에 생긴 4년제 중학본과 이후 2년제의 사범과가 생기면서 중학본과생들이 그대로 사범과로 올라가면서 2년 동안 졸업생이 없었다.

다음은 1947년부터 1951년의 5년이다. 학교가 1945년 3월 풍문재단으로 넘어가면서, 그해 졸업반인 4학년은 정신여학교 졸업생으로 38회로 졸업하게 된다. 그리고 풍문고등학교에서 1946년에 졸업한 학생들도 3년을 정신여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므로 정신여학교 39회 졸업생으로 하였다.

1947년 학교가 복교되면서 5월 1,2학년 신입생을 모집하고, 7월에 정부의 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1950년 6·25사변이 나게 되어 학업이 중단되었다. 1951년 9월 20일 부산 전시

학교를 열어 다시 학교가 시작되었고, 1951년 9월 1일, 정부의 학제개편(6-3-3-4)에 따라 정신여학교가 정신여자중학교(3년)와 정신여자고등학교(3년)로 분리되어, 1952년 3월 25일, 용두산 관북교회 가교사에서 1947년 2학년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1회, 즉 39회 졸업식을 거행하였고, 1949년에 입학하여 3년 수학한 학생은 중학교 1회, 마찬가지로 39회로 졸업하였다.

**이희천** 정신여고 교장

## 아기나들이



## 윤태준 아기

2017년 8월 18일생

1.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2.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아빠 윤승진 / 엄마 노은경, 2017년 10월 29일 1부 예배

## 공동체 소식

## 연합 남선교회 청계산 산행



10월 21일(토) 연합남선교회에서는 청계산 산행을 다녀왔다. 남선교회 재건 후에 처음으로 가지는 야외행사였다. 60여명이 함께한 가을맞이 산행으로 흠뻑 땀을 흘리고 함께하며 즐겁게 먹는 점심은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운 가을날의 모습이었다.

함줄함줄

## 공동체 소식

## 10교구 가을 나들이



10월 29일 주일 오후, 주님의교회 앞 아시아 공원 잔디밭에서 10교구 일일 나들이 행사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맑고 깨끗한 하늘 아래 맛있는 식사를 나누고,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함께하며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10교구는 20~30대 부부와 아이들로 구성된 교구로, 주중에는 직장생활과 육아로 모이기 어려워 매 주일 겨자씨 모임을 가지고 있다. 평소 함께 모이는 겨자씨 구성원 뿐 아니라 다른 겨자씨 구성원과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이에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10교구 일일 나들이에 참석한 한 참가자는 “야외에서 아이들과 함께한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고 말했다.

이태욱 전도사

##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월~금)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주님의교회  
전화상담사랑나무와 함께하는  
에이레네 음악회

## 제2회

## 〈에이레네 음악회〉는

사랑나무와 사랑나무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마련하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에이레네’는  
헬라어로 ‘평강’을 의미합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 20:21)

\* 사랑나무와 함께 사랑을 맺기 원하시는 분들을 찾습니다.

청년들도 많이 동참해 주세요.(문의: 이채인 전도사 010-4430-1514)



▶ 11.12(주일) 오후 1:30 1층 소예배실

## 알립니다

## 1.권사회 11월 총회

일시 : 11월 15일(수) 오전10:30 소예배실(1층)

문의 : 최정숙 권사(010.3470.0806)

## 2. 하나님 나라와 영성 훈련

5차 : 11월 27(월)~29(수)

내용 : 침묵기도, 복음관상기도, 기도지도(2회)

문의 : 김용웅 목사(010.4222.7796)

## 3. 2018 청소년부 신입 교사대학 지원자 모집

등록 기간 : 11/5~12(매 주일)

장소 : 교회 로비, 4층 청소년 교육목회원실

대상 : 본 교회 등록 1년 이상 된 세례교인

교육 일정 : 11/19~26(매 주일) 오후 1~3시

문의 : 왕상현 전도사(010.9621.2196)

## 4. 자녀와의 관계 향상을 위한 1,2,3(제3강)

일시 : 11월 19일(주일) 오후1:30 제1집회실(5층)

강사 : 김명식 집사(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문의 : (사)섬김과나눔(02.415.5113)

## 5.주오케스트라 절기에배단원 모집

성탄 칸타타 예배 : 2017년 12월 20일(수)

대상 : 관,현악 연주자

문의 : 안정수 안수집사(010-5445-5004)

## 6.제17기 결혼예비학교

대상 : 결혼을 앞둔 커플&amp;결혼 1년차 부부

일정 : 11/19, 26, 12/3 매주일 오후4:00~8:00

회비 : 커플당 8만원 / 신청 : 11월 12일까지 교역자실(4층)

문의 : 허준 목사(010.5450.5308)